

영화감상문

202537008 문성미

[영화 줄거리]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긴 트랙을 달리는 마라토너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누군가는 낙오되지 않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린다. 하지만 여기, 오직 달리는 그 순간의 바람과 행복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소년이 있다. 바로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윤초원이다. 이 영화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진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장애라는 무거운 소재를 동정의 시선에 가두지 않고 한 인간의 주체적인 성장과 가족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담백하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주인공 초원이는 얼룩말과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걸보기에는 또래와 다름없는 순수한 청년이다.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 그는 대화할 때 타인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초원이의 엄마 경숙은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수없이 좌절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초원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온 삶을 바쳐 헌신한다.

어느 날 경숙은 초원이가 달리기에 남다른 재능과 집착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다. 초원이가 달릴 때만큼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과 다를 바 없고 누구보다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아챈 경숙은 아들의 목표를 마라톤 서브쓰리(3시간 이내 완주)로 잡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초원이의 학교로 오게 된 전직 유명 마라토너 정욱이 초원이의 코치를 맡게 된다. 처음에 정욱은 초원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달리기만을 사랑하는 초원이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비극적인 갈등이 찾아온다. 정욱은 경숙의 과도한 집착을 보며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만족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경숙 역시 초원이가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죄책감에 빠진다. 결국 경숙은 초원이의 마라톤 완주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대회를 취소한다.

그러나 대회 당일, 마라톤의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초원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스스로 트랙을 향해 뛰어나간다. 엄마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달리고 싶다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초원이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홀로 외로운 레이스를 시작하고, 엄마 경숙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비로소 아들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응원하게 된다. 결국 초원이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며 영화는 깊은 감동 속에 막을 내린다.

[소감문]

「말아톤」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초원이의 노력과 이를 곁에서 지켜준 가족의 사랑이었다. 처음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초원이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영화를 볼수록 초원이는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초원이가 달리기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또한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의 모습도 인상 깊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영화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꿈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장애인을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강점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장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아톤」은 단순히 장애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영화라고 생각한다.